

건축교육현장에 기초한 커뮤니티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Community Design Education for Sustainable Environment

김 우 영* 강 태 웅** 소 갑 수*** 김 승 제****
Kimm, Woo-Young Kang, Tae-Woong So, Kab-Soo Kim, Seung-Je

Abstract

Community design education has covered the worldview dimension of the collaborative courses for sustainability draws on the architectural expertise developed in a network of community projects and therefore case studies of design education by the collaborative project-based learning in terms of participants, students, teachers and architects, such as 'Learning By Design' for the K-12 comprehensive program in Massachusetts addresses how a local society can make its community sustainable by both design and education. To understand that community design and education can provide professional development in all levels of skills and knowledge across disciplines an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blem-solving, this research consists of case studies of the community design education including social systems that assist in organizing the local educational program as well as promoting the programs with public awareness of the community. It covers the UNESCO-UIA agenda of the community design and education that is to enhance the physical environment relating to human interaction by developing innovative alternatives of existing community and contributing voluntarily to neighborhoods through design. As the community design collaborative of design professionals and users is a structural approach to assess design quality, the cases address how to set up the architectural program in order to share pro bono design service and provide high-quality design resources available for sustainable environment.

키워드 :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 건축기초교육, 지속가능 환경

Keywords : Community, Design Education, Sustainable Environ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네스코(UNESCO)와 세계건축가협회(UIA)의 2005년 개정판은 지금까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가 양질의 생활환경구축에 공헌한 바가 크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건축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과제 개발을 통해 건축 및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특히 건축교육 및 전문직 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여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미래 건

축가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건축가의 역할을 책임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공간의 계획, 설계, 건설, 이용, 설비, 조정 및 관리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에 따른 커뮤니티 개선과 이를 위한 자체적인 학습 및 교육시설 확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은 지역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행태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가능한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맥락의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체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정회원,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디자인학박사

** 정회원, 단국대 건축학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 정회원, 한양대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광운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ksj@kw.ac.kr)

본 연구는 2010년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2 연구 범위와 내용

유럽의 평생교육에 있어 건축기초교육의 범주는 크게 교양 프로그램, 개인 특성 및 소양교육, 전문가 교육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로서의 건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과 목공, 배관, 장식, 인테리어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건축 관련 기능 및 실기를 익히는 개인 특성교육 및 소양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건축전문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학위과정이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학습 등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건축기초교육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외의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2005년 유네스코(UNESCO)와 세계건축사협회(UIA)에서 채택된 ‘건축교육헌장’에 기초하여 현재 논의 중인 건축기초교육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 분석과 국내에서 입법화된 ‘건축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기초해 운영 가능한 교육조직의 형식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의 연구 내용

연구분야	세부연구내용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의 운영체계	-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 운영현황 - 디자인 교육 운영구성과 지원 - 디자인 교육 학습내용과 방법
국외 건축기초교육 프로그램 사례분석	- 미국, 영국(유럽연합), 일본 등 국외 대표적 건축기초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체계 - 대상 국가별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그램의 교육대상별 교육체계 및 교육내용분석

2. 국외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의 운영현황

2.1 커뮤니티 디자인 및 교육 협력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의 커뮤니티 디자인협의체(Community Design Collaborative)는 디자인을 통해 이웃과의 유대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및 저소득 건축주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 재생이나 재정비 등과 같은 지역단위 환경개선사업에서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를 구축하여 디자인 전문가의 업무를 향상시키고 사전개발단계부터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협력을 유도하고 지역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과정에서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소통을 제공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

‘산토르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the Charles Santore Library)’²⁾은 2006년 남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헌터(Hunter) 조경 및 그레이 스미스(Gray Smith)사무소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기존 도서관인 산토르 도서관의 정원을 개조하고 있으며, 외부공간에서 모임이나 체스경기와 같은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행사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자진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접근성이 양호하고 보다 개방감이 있는 조망이 가능한 커뮤니티 디자인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쿡-위사히콘 집과 학교 연합(Cook-Wissahickon Home & School Association)³⁾과 쿡-위사히콘 녹색 위원회(Cook-Wissahickon Green Committee)⁴⁾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위한 조경계획에 대한 개념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협동 자원봉사단체는 학교운동장을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였다. 그 결과로 정원, 자연담장 및 외부수업교실 등을 제공하게 되어 필라델피아 최초의 녹색공립학교로 재구성되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여 디자인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의 역할을 보면, 윌나스 로버트 앤 타드 유한회사(Wallace Roberts & Todd, LLC)와 두필드 협회(Duffield Associates) 및 스튜디오 제에이이디(Studio JAED)가 자원하여 필라델피아 상위 성적의 공립학교에서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사례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디자이너, 마스터맨, 학교 교사 및 학생이 참여하

- 1) 커뮤니티 디자인 협력으로 명명된 사이트는 디자인을 매개로 이웃관계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교육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비영리단체를 연결하고 있다. http://cdesignc.org/p_1000.htm
- 2) 필라델피아 산토르 도서관 친구들은 찰스 산토르 도서관이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를 성금 모금자들과 도서관 재원 및 수요 현황을 인식하고 있는 도서관 관리자들이 협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대안들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협의체이다. http://santorelibrary.net/friends_recent_initiatives.html
- 3) <http://www.cookwiss.com/>
- 4) 2001년 학부모, 과학 및 보건 교사, 학생 및 이웃 거주자들로 형성된 녹색 위원회는 쿡 위사히콘이 보다 지속가능한 그린스쿨로 필라델피아 학교지역에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임으로 결성되었고, 2009년 빌리디안 조경 스튜디오(Viridian)에 의해 전체 조경계획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녹색 벚꽃시장 및 예코-행사’, ‘지구의 날 포도따기 축제’, ‘지구의 날 꾸러미’ 등 다양한 녹색교육환경에 관계된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http://cook-wiss.wikispaces.com/Green+Committee>

는 1일 워크숍을 통해 학교의 증축배치 계획안을 평가하고, 지역 공감대를 유도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시 마스터맨 집과 학교연합(Masterman Home & School Association)은 미국건축사협회 필라델피아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실제 디자인을 구현하는 시공에서도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계속되게 된다. 필라델피아 사랑의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Philadelphia)는 1999년 결성되어 스티레스 4200번가(Stiles St.)에 새로운 하우스 디자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고, 2007년 해비타트 및 동부공원부 공동체(East Parkside Community)가 참여하는 필라델피아 최초의 그린 저가 주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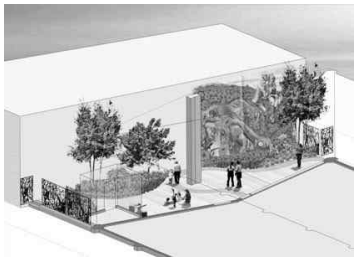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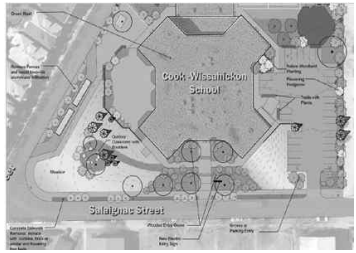


2.2 커뮤니티 디자인 초중고교 정규교육 협력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디자인 학습(Learning By Design, LBD)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사람, 장소, 공간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활동을 유도하고, 학생과 교사, 건축사가 함께 디자인하고 학습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 건축 및 디자인 교육(K-12 Architecture and Design Education)을 통해 강력한 커뮤니티가 구성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례기반 학습의 측면에서 디자인 학습은 아동들이 그들 자신의 디자인 질문들을 이끌어내는 호기심, 자신들의 해답을 발견하는 창의력, 그들의 해답에 관해 자신들의 생각을 소통하는 높은 수준의 사고력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지구촌의 구성원인 아동들에게 미래 디자이너, 엔지니어, 시공자, 의사결정권자로 자랄 수 있게 인공 및 자연 환경에 대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⁵⁾ 또한 디자인 학습교육은 예술 국가지원자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와 보스턴 과학협회(Boston Scientific) 및 보스턴 건축사협회(the Boston Society of Architects)의 기금으로 예술과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에 적용 가능한 2년간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일본에서의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다시는 모노즈꾸리 대학과 연대해서 2008년부터 매년 7회씩 “재미있는 만들기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화학, 물리, 재료,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들기 체험을 통해 소재가 가지는 특성을 배우고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배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5) Learning By Design in Massachusetts, A K-12 architecture and design education program. www.architects.org/LBD

표 2 커뮤니티 디자인 협력 사업 사례: 미국 필라델피아

구분	내용
산토르 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the Hunter) 조경 및 그레이 스미스(Gray Smith) 사무소, 2006	-기존 산토르 도서관의 정원 및 인근건물과 사이공간을 개조하여 친환경 쌈지공원으로 개조하여 휴식공간제공, 이야기, 체스경기, 모금운동 등의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여 주민 참여가 가능한 외부공간 활성화 -협동 개념 조경 디자인을 통해 접근성과 조망권을 확보
	
쿡-위사히콘 집과 학교 연합(Cook-Wissahickon Home and School Association)/ 쿡-위사히콘 녹색 위원회(Cook-Wissahickon Green Committee)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조경계획(2008)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개념 디자인 완성 협동 자원봉사단체는 녹색 조경 마스터플랜을 개발하여, 학교운동장을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조성하고, 정원, 자연담장 및 외부수업 교실을 제공 -필라델피아 최초의 녹색 공립학교로 재구성
	
마스터맨 집과 학교 연합(Masterman Home and School Association) 월라스 로버트 앤 타드 유한회사(Wallace Roberts & Todd, LLC), 2008	-협동 단체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상위 성적의 공립학교에서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및 시설 이용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의 역할과 시설의 이용현황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 -100여명의 행사 참여인원이 공공서비스에서 약 9만불 이상을 투입하여 마스터맨(Masterman)학교의 증축배치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운영계획 수립 -심도있는 1일 디자인 워크숍에서 디자이너들과 마스터맨 학교 교사 및 학생이 관여
두필드 협회(Duffield Associates), 스튜디오 제에이이디(Studio JAED)	미국건축사협회 필라델피아 교육 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도부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필라델피아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Philadelphia), 1999	-협동 자원봉사자들이 스티레스 4200가(Stiles St.)의 신 주거 디자인의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사업을 결정 -해비타트 및 동부공원부 공동체(East Parkside Community)가 참여한 필라델피아 최초 녹색저가주거사업 진행
	

건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어릴 때부터 고취시킬 수 있다. 기후현은 풍부한 삼림 자원이 풍부하고 뛰어난 목수장인과 목조 건축의 전통이 있다. 이 기후현에 자연과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 지속 가능한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유로운 실용적인 고등 교육의 거점으로서 “숲 문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산림문화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학습과정으로 분류된다. 생애학습과정의 강좌는 연속강좌, 단독강좌, 애프터강좌로 구성되며, 나무의 성질, 목공, 목조건축, 지역정비 등 일반시민이 기후현의 주 수종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요코하마 국립대학의 건축도시스쿨(Y-GSA)에서는 요코하마시와 공동주최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옴니버스식 공개강좌 “건축도시학 시민공개강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⁶⁾ 건축도시학 시민공개강좌는 건축과 도시, 사회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면서 건축과 도시의 미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적이다. 국내외 건축가, 도시 계획가, 사회학자, 사상가, 비평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건축강좌와 도시강좌의 두 시리즈로 구성되며, 건축과 도시의 개념을 아우르면서 융합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여 연간 각 시리즈 8회(총 16회)로 개최하고, 스튜디오에서의 설계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건축을 둘러싼 세계관을 재구축하고, 건축개념의 확산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원 230-250명에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요코하마 에코스쿨과 요코하마국립대학 지역실천교육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시민공개강좌 ‘살고 싶은 도시를 생각하다’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강좌 주제는 도시환경에 관한 문제로서 태양광발전, 도시계획의 환경디자인,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 만들기, 도시재생 등이 있다. 한편 최근 건축구조 분야에서 환경, 자원, 구조디자인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건축기술자의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청소년, 대학·대학원생, 일반 시민에게 건축구조의 중요성과 흥미를 감각적으로 유도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건축구조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건축공개강좌 ‘새로운 건축구조의 세계’⁷⁾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6) <http://www.ynu.ac.jp/hus/koho/1368/detail.html>
 7) <http://www.kenchikugakubu.jp/news/2010090801.html>

표 3 메사츄세츠 커뮤니티 디자인 학습

메사츄세츠 초중고(K-12) 디자인 교육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oston Scientific BSA, www.architects.org/LBD

건축 : 예술 및 수학 (Architecture: Art and Mathematics)	건축-수학 활동 및 주거디자인 프로젝트: 건축과 수학의 관계를 습득하고 이해하며, 예술과 수학에서의 학습을 주거디자인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디자인의 문제, 지역건축의 사례조사 및 사이트 분석을 진행
건축 : 예술 및 과학·공학 (Architecture: Art and Science/Engineering)	그린빌딩 학습 및 지속가능한 미래 프로젝트(대지, 일조, 바람, 물 및 재료 및/또는 에코센티디자인 프로젝트 등)를 통해 심화된 수준의 아이디어 교환을 진행하고, 디자이너, 엔지니어, 시공자, 의사결정자, 지구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인공 및 자연환경에서 상호 혜택을 공유하는 대안을 도출하는 창의적 학습
건축 : 예술 및 역사·서사 (Architecture: Art, History and Story)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학습: 역사적 건물 및 장소 방문, 지역 커뮤니티와 건축에 대한 글쓰기 및 박스도시 만들기 등을 통해, 사회과학을 적용하여 환경, 기후, 지역을 포함하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시스템에 기반한 커뮤니티의 상호관계 조사하고, 커뮤니케이션과 지역 간 협력에 의해 사회 및 문화를 커뮤니티를 조직하는 프로젝트를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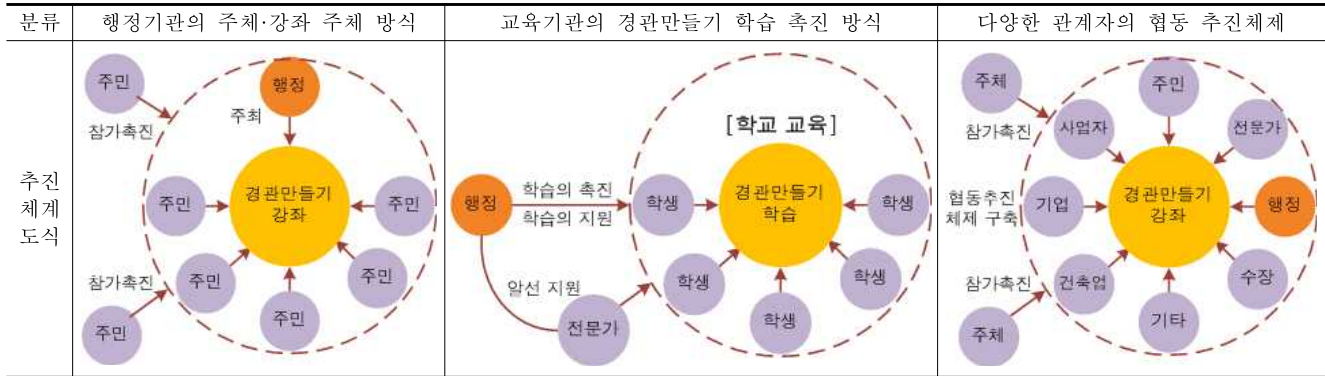


3. 선진국의 건축기초교육 체계 분석

3.1 미국의 건축기초교육 체계

미국건축사협회(AIA)는 준회원들을 대상으로 건축사등록시험 및 사회적으로 전문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대해 세미나와 워크숍 형식으로 전체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국가건축등록원(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NCARB)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인턴개발 프로그램(Comprehensive Intern Development Program)이 있다. 국가건축등록원(NCARB)은 건축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대해 국가건축인증원(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NAAB) 및 미국건축사협회(AIA)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건축교육, 건축사시험, 건축실무경력, 건축사 재교육, 건축사보 실무교육 등을 통합하는 제도와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표 4 건축기초교육 추진체계 및 학습방식 사례: 일본



사항을 권장하고 있다.⁸⁾ 또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건축 분야의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인력 개발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Unit)과 보건·안전·복지 분야의 평생교육 및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교육 관리체계는 미국건축사협회의 인증을 통해 전체 40개 주에서 건축사 면허갱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주에서도 이를 검토 중에 있는 실정이다. 각 주는 연간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의 건축사 실무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수기간은 1년에서 3년에 걸쳐 주별로 정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교재로 활용되는 단행본에는 약 25개의 단편 주제로 구성되어 지속가능한 디자인, 점유 후 평가에 이르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건축분야의 디자인 교육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분야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교육의 인증범위가 개별적으로 심사에 의해 반영될 수 있고, 건축인증원에서 승인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정 프로그램을 통해 과목에 대한 이수여부가 인정되면 인증된 건축실무기관에서 경력증명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건축사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⁹⁾

3.2 일본의 건축기초교육 체계

일본의 건축교육은 전문화된 건축가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과 함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학회 및 대학, 기업 및 법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기초교육 강좌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건축가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은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대학 및 전문학교 등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중앙지정기관인 (사)건축기술교육보급센터로부터 자격시험을 거쳐 건축사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일본건축가협회(이하, JIA)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설계 및 감리분야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록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06년 건축사법 개정이 공표되어, 학력 및 실무경험 요건 강화, 건축사 시험내용 개선, 정기강습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정기강습제도는 국토교통성의 등록기관이 주관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실무 건축가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강습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은 1일 8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강의 및 실무내용을 수강하고 소정의 수료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반인 대상의 건축기초교육은 건축 및 도시환경에 관련하여 주로 경관만들기사업 또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초적인 학습을 통한 이해습득 및 체험학습, 전문가적인 실무내용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부기관 및 관련학회에서의 교육과정 대상은 어린이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반면, 대학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업 또는 지역의 소규모 공방에서는 건축설계 및 시공 등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자격 취득과

8)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건축사 면허취득은 국가건축인증원(NAAB)과 캐나다건축인증원(CACB)이 인증한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규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동일하게 인증된 사전 건축전문학위(Pre-Professional Architecture Degree)를 취득하였거나, 개인의 여건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검정고시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동등한 학위를 이수한 경우 등에 대해 국가건축등록원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게 제도화 되어있다. 단 각 경우에 대해 자격시험에 필요한 실무경력기간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9) <http://www.ncarb.org/Experience-Through-Internships/Getting-Started.aspx>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건축기초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표 5와 같이 관련 행정직 공무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단체 등과 협동체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 체제를 통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경관마을 만들기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호소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과 시민 또는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방식을 병행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경관마을 만들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추진형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행정기관에서의 교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와 이벤트를 주최하고 참가를 촉진하거나, 둘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발신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기회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고, 셋째, 다양한 단체·조직을 이용하여, 기존의 단체와 조직을 활용해 사람을 모아 강좌와 이벤트 개최하거나, 넷째, 참가자를 모집해서 지역의 경관과 경관마을 만들기 관련 강좌와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지역 내 건축 및 도시환경에 대한 정보 습득과 역사적 자산의 계승의식 함양을 위하여 경관마을만들기 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마을만들기 지원사업¹⁰⁾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행정기관, 교사, 학생, 주민, NPO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 다방면의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에서 경관만들기 학습은 “종합적인 학습”에 대응할 수 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등의 학습과 조합하여 전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목의 지역 조사와 역사학습, 국어 표현, 미술 표현 등과 관계하면서 마을 경관을 조사하거나, 경관의 인상과 느낀 가치를 시로 표현하거나, 마음에 든 경관을 사진으로 찍거나 모형을 만드는 등 경관만들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은 학교의 경관만들기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경관만들기 학습의 가이드라인”, “실천 사례집” 외에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모델프로그램은 <느끼다>, <조사하다>, <생각하다>, <행동하다>라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3.3 영국의 건축교육 체계

영국의 건축기초교육 체계는 기본적으로 ‘장소 만들기’(Engaging Places)라는 웹기반 정보공유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CABE(Commission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Environments)와 EH(English Heritage)의 출자로 설립되어 영국 전역에 퍼져 있는 ABECs(Architecture and Built Environment Centres)의 전국적 연결망인 건축중앙네트워크(Architecture Centre Network, ACN)를 통해 인적·물적 지원과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CABE와 인게이징 플레이스(Engaging Places) 그리고 ACN을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건축교육체계는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건축전문 교육과정과 비전문가를 위한 건축기초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건축전문교육은 일반적으로 건축가자격의 획득을 위한 과정인데 이 과정은 크게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나뉜다. 정규과정은 5년의 교육과 2년의 실무경험 등 총 최소 7년의 기간이 소요된다.¹¹⁾ 그러나 영국에서는 위와 같은 정규과정 외에 다양한 비 정규과정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각각의 과정(Part-1, Part-2)은 ARB와 RIBA가 인증한 기관에서 연속성 없이 이수되어도 인정될 수 있으며, 피교육자는 각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의 학점을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수 할 수 있다. 같은 원칙으로 외국인일 경우 해당 국가의 건축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ARB가 판단하거나 사정하는 심사과정을 통해 Part-1, 2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 Part-3를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특별히 학업을 할 수 없거나 다년간의 실무경력은 있으나 사정으로 인해 정규과정을 거치지 못한 자에게는 ‘실무기반 응시자 건축사 시험’(The RIBA Examination in Architecture for Office-based Candidates)라는 교육과정을 통해 Part-3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은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에서 운영하고, 각 과정별로 4년과 2년이 소요되며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만이 신청가능하다. 비전문가를 위한 건축기초교육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장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1980년대 초부터 영국 각 지역에서 일어난 주민/이민족 폭동은 영국 정부로 하여금 건축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1) 원칙적으로 5년의 교육은 ARB(Architects Registration Board)와 RIBA(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3년의 Part-1 과정(학부과정, BA, BSc)과 2년의 Part-2 과정(대학원과정, BArch, Diploma, MArch)을 이수해야 Part-3(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긴다. 2년의 실무경험 후 Part-3에 응시하여 통과 되면 ARB에 등록하여 건축사 자격을 획득한다.

10) <http://www.mlit.go.jp/crd/townscape/gakushu/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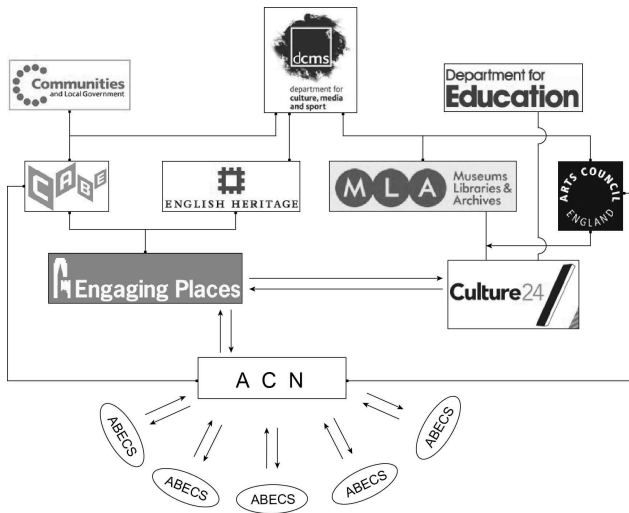


그림 1 비전문가용 건축기초교육 체계도 사례: 영국

또한 1981년 로드 스칼만(Lord Scarman)의 의회 연설이 찰스황태자의 지지를 받으며 물리적 환경보다 주민들의 장소의 심층적 이해와 참여 과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영국 건축기초교육의 방향설정 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CABE는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와 CLG(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공동 펀드로 1924년에 설립되어 건축 및 예술전반에 걸쳐 리뷰와 컨설팅을 해온 RFAC(the Royal Fine Art Commission)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세워진 독립적 공공기관이었다. 이는 제도적인 강제성이 아니라 '지역 장소의 정체성 찾기'라는 대주제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초중고의 교육과정에 연계되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 한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건축관련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공교육과정과 연계된 자발적 건축교육은 이후 자연스럽게 일반인의 관심을 유발하여 지역 환경조성 참여로 연결되게 되었다.

지역 환경조성 디자인 교육의 주요 활동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간에 대한 대정부 자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건축 환경에 대한 주도적 결정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축문화홍보와 교육을 연계하고 있으며 취약인구의 건축기초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보다 나은 공공건물(Better public building)을 선정하고 우수한 작품에는 영국 총리상(The Prime-minister's Awards)을 제정하여 매

년 실행하고 있으며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중 교육은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며 CABE는 일반인 및 학생 건축기초교육의 목표로, 첫째, 잘 디자인된 건물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둘째, 자신들이 거주하는 건축 환경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를 통해,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 배양하는 동시에, 셋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와 마을을 개선하고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과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학생교육을 위해 EH와 공동으로 인게이징 플레이스(Engaging Places)라는 건축교육용 웹기반 조직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였다. 이 조직은 커리큘럼 개발, 교육정보 제공 및 유지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CABE에서는 또한 환경적 관점의 교육을 독립적인 중요한 이슈로 녹색의 날(Green day)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건물과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인지시키고 있다.

2010년 6월과 7월 사이에 약 천여 개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건축기초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제공을 위해 매년 3회에 걸쳐 '360 메가진(Magazine)'을 발간하여 각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매력적인 장소' 또는 '장소에 개입하기'라고 해석이 가능한 이 웹기반 조직은 영국의 공교육 건축기초교육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 조직은 앞서 언급 했듯이 CABE와 EH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은 컬처(Culture) 24이라는 비영리 온라인 문화 출판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웹(Web)기반 조직인 인게이징 플레이스는 교사들에게 공교육 커리큘럼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건축교육 자료들을 제공하고,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된 핵심 4단계(Key Stage 4)로 구성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선·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또한 건축기초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되어 수준 높은 자료와 교육기회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건조환경교육(Built Environment Education)은 인게이징 플레이스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영국의 학제구분인 핵심 1단계(Key stage 1)부터 핵심 4단계(Key stage 4)까지의 정규 커리큘럼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영국의 정규과목은 8개

12) 컬처 24는 MLA(Museum, Libraries, and Archive council)과 DCS/DfSF(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그리고 예술위원회(Arts Council)의 출자로 만들어 졌다.

(English, Maths, History, Science, Geography, PSHE, Art and Design, D&T)로 나뉘며, 각 과목의 교육내용과 건축적 관점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이와 관련해서 QCDA (Qualification &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협업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사는 각 단계별로 적정수준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역사교육의 경우, 현대건축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유산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며,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각 지역의 건축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전역 연결망인 건축중앙네트워크(ABECs)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4. 결론

디자인의 변화가 보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재생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디자인 교육의 중요성은 이제 참여를 전제로 한 소통의 수단으로 단순히 전문가를 위한 적능교육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으로 부각되고 있다.¹³⁾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건축기초교육에 대한 논의를 국제적 시각에서 재조명해보고, 우리의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이 수용해야할 교육체계 및 콘텐츠에 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선 각국의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이 가지는 형식적 체계는 건축교육 전문기관 국한되지 않고, 미국 필라델피아 커뮤니티 디자인 협의체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 민간협력과 전문가 자원 서비스를 토대로 하는 다양한 디자인교육 프로그램과 친환경조성사업에 초점을 둔 현실적인 커뮤니티 환경개선이 교육과 실천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의 건축기초교육이 단순히 자격인증제도의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된 전문가 및 주민참여에 의한 창의적인 의사교환 및 디자인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건

축사 자격제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축교육이 단순한 전문지식의 습득에서 벗어나, 지역의 환경, 기후, 역사,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성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메사추세츠주의 초중고(K-12) 디자인 프로그램은 지역 구성원의 건축기초교육이 커뮤니티 디자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규교과과정으로 개발되어 지역건축 디자인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수학, 과학, 예술 및 역사에 대한 산 지식을 체득하는 창의적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간과 장소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용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지역 간의 협력을 조직화하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건축기초교육의 추진체계에 대한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사례조사는 각국의 건축교육인증기관이 제도적 강제성이 아닌 지역장소의 정체성 찾기를 주제로 비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건축관련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환경조성 디자인 교육을 공교육 및 자격교육 연계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건축교육현장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커뮤니티 디자인 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일구어 내기 위한 사회변혁의 대안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과제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일본 지역만들기 부화장을 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희망제작소, 2006
2. 광동화 외,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디자인의 역할과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25 n.09, 2009
3. 김미연 외,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설계지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26 n.04, 2010
4. 김영현·진현영,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기초건축교육 실행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5. 서수정 외4인,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
6. Lozano, Community Design and the Culture of Cities: the Crossroad and the W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3) 커뮤니티의 기초적 정의는 이제 장소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는 탈지역적 공동체로 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수용하는 개방형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다 차별화된 사회적 맥락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적 환원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은 양향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운동의 담론을 제공하며, 의사교환의 도구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Lozano, Community Design and the Culture of Cities: the Crossroad and the Wa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접수 2012. 02. 15
1차 심사완료 2012. 03. 05
게재확정 2012. 03. 22